

가톨릭 사제 부족에 아프리카서 초빙

미국에서 가톨릭 사제와 수녀가 부족해 아프리카에서 사제를 초빙해 오는 처지가 됐다. 1970년대 이후 사제 지망생이 줄어든 데다 가톨릭 성비위 사건 등이 잇따라 사제 구하기가 어려워졌지만, 아프리카는 최근 가톨릭이 매우 활성하게 전파되고 있어서다.

지난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의 많은 교구가 부족해진 사제의 자리를 메우기 위해 아프리카에 눈을 돌리고 있다.

미국 출신 사제가 줄어든 것은 그만큼 가톨릭 신자가 많이 줄어든 데다 전 세계적으로 터져 나온 가톨릭 사제의 성 범죄 스캔들 때문이다.

가톨릭에서 여성과 결혼한 남성은 사제가 될 수 없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은 제한을 풀면 사제 부족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에 바티칸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작년 미국의 사제 수는 1970년에 비해 60%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이 때문에 미국 내 3천500개 교구는 담당 신부가 없다. 수녀는 같은 기간 75% 급감했다.

반면 아프리카는 가톨릭이 매우 활성

하게 전파되고 있고 수도원은 꽉 차 있다.

짐바브웨 출신으로 현재 웨스트 버지니아 클락슨버그의 수녀원에 있는 마리아 쉐리 루키슈로 수녀는 "처음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로 옮길 때 거기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다."면서 "나는 그냥 백인 나라로 가는 흑인 수녀일 뿐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2004년 미국에 처음 왔을 때 한 소녀가 다가와 자신의 팔을 손가락으로 문지르고는 블그라미 손가락을 쳐다보는 것을 보기도 했다고 말했다.

자신을 더럽게 여긴다고 생각한 루키슈로 수녀는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지만, 지금은 많은 신도의 환영을 받으며 잘 지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AP 통신은 아프리카 출신 사제와 수녀들이 미국 사회에 처음 적응할 때 이처럼 크고 작은 문화적 충격을 느낀다고 전했다.

아프리카 출신 사제와 수녀들은 처음 미국에 왔을 땐 언어 소통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이 때문에 많은 교구는 이들이 발음을 교정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경찰 예산 삭감 도시들 다시 예산 늘려

지난 2020년, 미 전역에서 인종차별 항의시위가 불거지자 경찰 예산을 삭감했던 도시들이 각종 강력 범죄율이 치솟자 다시 경찰 예산을 늘렸다.

지난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로스앤젤레스, 뉴욕, 시카고, 포틀랜드, 미네아폴리스, 볼티모어, 오클랜드 등이 이런 도시들이라고 보도했다. 이를 도시는 인종차별 항의하는 목소리가 미 전역을 뒤흔들던 2020년 '경찰 예산을 끊어라' (Defund the police) 구호가 힘을 얻자 경찰 예산을 대폭 줄였다. 2020년에는 경찰의 잔혹한 진압 행위로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목숨을 잃은 일을 계기로 전국적 인종차별 항의 운동이 벌어진 바 있다. 지난해 뉴욕과 로스앤젤레스가 3억1천700만 달러, 1억5천만 달러를 삭감했고, 다른 도시들도 수백에서 수천만 달러 가량을 줄였다.

그러나 2020년, 십수 개 도시에서 살인·강간·강도 발생이 기록적 수준으로 집계됐고, 지난해에는 강력 범죄 발생 건수가 더 늘 것으로 보인다고 더타임스는 내다봤다.

미국에서 진보 도시로 손꼽히는 포틀랜드에서는 지난해 1월~9월 동안 살인이

73건 발생했는데, 이는 기존 최다치였던 1987년 66건보다 많다.

시카고의 경우 지난해 12월 21일까지 집계된 살인은 783건으로 지난해보다 4.5% 증가했다. 성범죄는 29% 늘었다.

플로이드의 죽음으로 인종차별 반대 운동 진앙이 된 미네아폴리스도 전년 대비 살인이 13.4% 증가했으며 뉴욕, 볼티모어 등에서도 지난해 살인이 2~3% 더 많이 발생했다.

공교롭게도 이 도시들은 모두 올해 경찰 예산을 다시 늘렸다. 뉴욕이 4억6천500만 달러로 가장 큰 폭으로 경찰 예산을 늘렸고, 시카고도 1억8천900만 달러를 투입하며 뒤를 이었다. 가장 적게 예산을 늘린 도시는 오클랜드와 포틀랜드로 각각 330만 달러, 520만 달러를 추가했다.

더타임스는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등 시 당국이 예산 삭감 후 치솟은 범죄율로 경찰 예산을 끊어라 운동을 외면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전 로스앤젤레스와 뉴욕 경찰국장을 역임한 윌리엄 브래튼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찰에 부담이 쏠리는 상황에서 예산 축소 조치로 경찰의 사기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청해 선생과 풀어 보는 한주간의

띠별 운세

1월 3일 ~ 1월 9일, 2022년

청해 역학 학술원(清海 易學 學術院)
예약전화: (714) 534-4645
9618 Garden Grove Blvd., #108
Garden Grove, CA 92844

남자 길일 : 3, 4, 7, 8 여자 길일 : 5, 6, 9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한 법이니, 많아서 넘치는 것이 있으면 모자라는 곳에 덜어 주어야 합니다. 욕심을 부리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베푸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분수에 맞지 않는 일은 도모하지 말아하고 사업은 기반을 다지고 내부 관리에 중실해야 합니다. 교섭과 거래는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금전○애정△ 건강○



지금 현재는 스스로의 내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일을 급하게 서두르면 이롭지 않습니다. 때를 기다리면서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고 신중을 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력을 쌓고서 좋은 때를 기다리면, 곧 마음껏 뜻을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전○애정○건강△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고 이치에 따라서 행동하면 길하지만, 만일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어려움을 초래하게 됩니다. 준비 없이 무작정 일을 벌이면 소문만 크게 나고 실속은 없을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은 도모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적인 충실을 기하고 안정을 취하면 뜻밖의 행운을 얻게 됩니다. 금전△ 애정○ 건강○



새로운 일을 도모하지 말고 지금까지 하던 일을 지키는 것이 유리합니다. 직분을 지키고 견실하게 노력하면 복록이 저절로 생길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협력 관계를 잘 유지하고 넓은 아량으로 덕을 베풀어야 합니다. 하던 일을 지키고 내부 관리에 충실해야 합니다. 금전○애정△ 건강○



정도를 벗어나면 좋지 못합니다. 비리를 탑내지 않고 겸손하게 행동하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분수를 지키지 않거나, 헛된 일을 가까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작은 일은 뜻과 같이 순조롭지만, 큰 사업을 도모하면 어려움이 따르겠습니다. 금전△ 애정○ 건강○



지금은 실력이 있어도 환경에 적응하면서 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남의 의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상책입니다. 관망하는 자세로 실력을 배양하면 좋은 기회가 저절로 찾아올 것입니다. 한편, 변화하는 상황에 재빨리 적응해야 합니다. 주위 환경에 대한 관찰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금전△ 애정○ 건강○



구름이 하늘에 올라가서 비가 되어 다시 내리기를 기다리는 형국입니다.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느긋하게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희망을 가지고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조조해 하지 말고 마음을 너그럽게 가져야 크게 성공합니다. 적당한 기회를 노리면서 덕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금전○애정△ 건강○



질제가 지나치면 발전하지 못하고, 질제가 없으면 파멸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법. 중도를 생활의 지침으로 삼고 순리대로 일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작은 사업은 척실히 노력하면 상당한 이익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큰 사업은 신중히 추진해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거래와 교섭에는 지나친 욕심을 갖고 임해서는 안 되고 먼저 상대방의 이익과 의도를 인정해 줘야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금전△ 애정○ 건강○



반복되는 생활을 유지함으로써 생활의 안정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태평스러운 세월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 권태로움을 수반하므로 변화를 모색하게 되고 목구불만이 생기기도 쉽지만,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확고한 주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마음을 곧고 바르게 가져야 하고 육친을 공경하고 넓은 덕을 쌓아야 합니다. 금전○애정○ 건강△



다른 사람의 의사를 따르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혹 스스로 옳다고 생각되는 일이 있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고집을 부리지 말고 웃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겸손하고 유순한 자세를 가지면 복록이 저절로 따르게 마련입니다. 언행을 조심하고, 주변 사람들과 의견 충돌이 일어나거나 금전 문제로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금전△ 애정○ 건강○



지금은 남의 의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상책입니다. 관망하는 자세로 실력을 배양하면 좋은 기회가 저절로 찾아올 것입니다. 한편, 변화하는 상황에 재빨리 적응해야 합니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휴식을 취하듯이, 주어진 상황과 때에 따라서 행동하면 길합니다. 지금까지 활성한 활동을 했던 사람은 남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스스로를 돌아켜봐야 합니다. 금전○애정○ 건강△

다른 사람과 시비를 벌이지 말아야 합니다. 구설수가 두렵습니다. 넓은 덕을 베풀고, 성실하고 균면하게 생활하여야 합니다. 때를 맞추어 일을 한다면 나아가 공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문서계약 관계는 분명히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남의 보증을 서지 말아야 합니다. 금전○애정○ 건강△